

## 다자이후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자이후 전시관은 다자이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설입니다.

1300 년 전, 다자이후는 규슈의 행정상 중심지에 위치했으며 정치와 종교, 문화의 일대 거점이었습니다. 다자이후는 일본과 외국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동서를 잇는 고대 교역로였던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 위치했던 일본은 다자이후를 통해 흘러가는 문화와 물자를 통해 당시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국제성과 지적 교양, 학문에 대한 정신을 양성했습니다.

다자이후 전시관은 다자이후의 다채로운 역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방위를 목적으로 다자이후 지역의 자연 지형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궁전과 같은 정부기관의 정밀한 입체 모형에는 중국 특유의 영향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입던 옷의 색상이 어째서 그들의 신분과 직업에 관련되어 있었는지, 당시의 다자이후에서 어째서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었는지 등 다자이후 전시관을 관람하면 당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사진 갤러리에서는 다자이후의 수많은 옛 영광들을 설명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발굴 조사에 주목합니다.

다자이후는 2019 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연호인 레이와(令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레이와라는 연호는 8 세기에 다자이후에서 거행되었던 ‘매화 연회’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자이후 전시관에서 고대 다자이후로 떠나는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